

한교총, '의료 대란' 해결 위해 '기도의 날' 선포

호소문 통해 "나라와 민족 위한 금식기도" 요청
신음하는 국민의 울음소리 하늘 향해
한국교회, 나라·민족 위해 울어야 할 때
총선, 대한민국 역사의 새 전환점 되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사진)이 1일 '의료 대란'과 관련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한 네 번째 성명이다. 한교총은 오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지금 우리 대한

민국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수술을 급하게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호소하며 중재자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해결

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혹은 자신들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과감히 몰아내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교총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

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며 "노헤미야서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노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한 현실에서 노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며 "의료 대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속히 안정되어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2024년 4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 소속 36개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자"면서 아래와 같은 기도제목을 공유했다.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김진영 기자

한교연, '2024년 한국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부활절이었던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세광중앙교회에서 '2024년 한국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한교연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한국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했다. 한교연 산하 49개 교단 26개 단체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1부 개회행사와 2부 예배로 나뉘어 진행됐다.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가 진행한 1부 개회행사는 공동회장 조영구 목사의 환영사,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대회사, 총무협의회 회장 신조화 목사의 2024 부

활절 메시지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대회사에서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다. 사셨네, 사셨네, 우리 예수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 하신대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다 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후 우주적인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이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매년 매해 드리고 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이날 총무협의회 회장 신조화 목사가 낭독한 '2024 부활절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바람에 영적 권위는 추락하고 복음의 능력마저 조롱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면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사회와 온 사회, 더 나아가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도록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방에 함차게 증거하는 부활 주일이 되길" 소망했다.



한교연 2024년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부활주일 연합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2부 예배는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의 인도로 상임회장 조성훈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하안날개 찬무단의 특별공연 후, 서기 정광식 목사의 성경봉독(요한복음 20장 13-18), 연합성가대의 부활찬양에 이어 특별기도를 드렸다.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최철호 목사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복음으로 평화통일, 공동회장 조영호 목사가 △포괄적 차

별금지법 및 동성애법 폐지, 공동회장 김경희 목사가 △제22대 총선에서 바른 지도자 선출, 공동회장 김명식 목사가 △한국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각자 기도했다. 이어 상임회장 김노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날"이라며 "예수 부활의 실상은 우리 생각과 기도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 그대로 봉독하면서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자"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는 성서총회 그루터기 찬양단의 봉헌찬양, 명예회장 김경근 목사의 봉헌기도,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 명예회장 김바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행동하자"

한기총, 4월 10일 총선 위한 시국기도회 개최한다



민도 진영논리에서 분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막힌 답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합(合)의 길을 찾아가'는 기도를 원한다"며 "선거가 대립과 비방으로 점철되지만,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21대 국회까지 '정치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국교회가 막아섰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 끝까지 지켜냈다. 지금도 여러 핏수로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가 있지만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또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불붙어야 하며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무총장 김경환 목사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에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동참하지는 의미"라며 "한기총 산하 81개 교단 및 단체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는 오는 5일(금)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안양대성전에서 '2024년 4월 총선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국가안보/정치안정/경제회복/사회통합/통일한국'을 주제로 한 기도회에는 조용목 목사(한기총 원로자문회의 고문)가 "기회와 선택"을 주제로 설교한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국

부활절, '트랜스젠더의 날'과 겹쳐 미국서 보수-진보 충돌

지난달 31일 부활절을 맞아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충돌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한 '트랜스젠더 자 사회의 날'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명절이지만, 날짜가 유동적이

다. 반면 '트랜스젠더의 날'은 매년 3월 31일로 고정돼 있어 올해 부활절과 겹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날 선포문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삶과 목소리를 높이고, 차별을 없애자"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캐롤린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부활절 날 트랜스젠더의 날을 선포한 것은 모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앤드루 베이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나래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인터네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유리 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그리스도인으로 백년’ 김형석 교수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

온누리교회 ‘원더풀 라이프 공개 세미나’서 강연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가 최근 서빙고 성전에서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독교인으로서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 철학과)가 ‘그리스도인으로 백년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형석 교수는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다. 14살 교회학교 졸업식 당시 아파서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20살까지 살면 다행’이라고도 했다”며 “그때 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제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 평양 소재 장로교 계통의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들은 설교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견지했고, 이것이 내 신앙의 출발이자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신앙의 기초석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성경책과 일본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웠다. 첫째, 예수님은 훌륭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다”며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존재할 뿐, 그 반대는 아니라고 깨달았다.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들었는데, 안 선생은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 그릇만 큼 받는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을 강조하셨다. 안 선생은 큰 그릇을 지닌 신앙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깨달은 또 다른 점은 대부분 교리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교리가 아닌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셨다는 것”이라며 “교리에 붙잡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대 교리는 계명과 율법이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을 버려야 신앙

을 배우고 이것이 진리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율법과 계명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며 “교회를 유지하려 많은 교리가 있었지만, 교리가 아닌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반대로 삶의 목적이 인간에 있다면 높이 올라가려다 타인을 짓밟고 결국 절망뿐이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며 “사회와 역사의 희망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로 형성된 기독교의 권위는 곧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견인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인간다움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20대 시절 목회자에서 철학자로 진로를 변경한 계기를 말했다. 그는 “해방 이후 저는 오랜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땅으로 넘어왔다”며 “제가 27살이었던 1947년, 첫 직장은 공립학교 교사였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철학과 신학을 계속 공부했다. 그때 당시 조선장로교교회 현장을 참관했다. 그리고 바선 안 되는 광경을 봤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교권 싸움으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극심했고, 결국 교단 분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총회장소를 나오면서 제게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신학 공부를 접고 철학 공부를 계속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생각했다”고 했다.



김형석 교수 ©노형구 기자

그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30대 중반 연세대학교 교수로 초빙됐다. 그러나 정년퇴직 이후, 교수 재직 때보다 강의 요청 등 일이 더욱 많아졌고 열심히 공부했다”며 “학교라는 강을 떠나 바다로 나가니 갑탄의 연속이었다. 정년퇴직 이후 더 넓은 사회에서 내가 감당할 더 많은 책임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내가 저술한 책 4권 중 3권이 정년퇴직 이후에 쓴 것”이라며 “50살까지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한다. 정년퇴직 이후 60살이 돼서야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75살 때까지 누구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60-75세는 인생의 노년자 같은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나이에 90살까지 성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는데, 일을 마무리하면 또 다른 일이 들어오며 제게 맡겨진 일은 계속됐다. 그래서 저는 95세까지 가보려고 결심했다. 그때 나이에 들어서자니 육체적 힘이 있을 뿐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신체는 늙으나 정신엔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정신은 늙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자는 게 내 신앙 고백”이라고 했다.

특히 “되돌아보니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에 행복과 감사뿐이다”며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석 교수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곧 행복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도 없다. 제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그 과정이 힘들고 피곤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인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함께 살며,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집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집을 나누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 영원히 몸을 기대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고생했기에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눠준 삶을 살았기에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교회는 타인과 사회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라며 “교회가 양성한 이런 인재들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김형석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중학생 시절 아버지는 내게 ‘나와 내 가정만 걱정하고 살면 성장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좋은 직장을 만들고자 산다면 그 직장 주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살 때, 자신도 모르게 민족과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면서, 사회가 자신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민족과 국가, 직장, 나를 위해 사는 세 부류의 사람의 그릇이란 각기 다르다.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사회라고도 한다. 경쟁사회에서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 이기적 경쟁심이다. 곧 아첨과 헐뜯기, 남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이 정치계에 많으면 나라의 망한다. 이기적인 경쟁은 재앙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것은 없다고 하셨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도덕과 윤리가 가르쳐 주는 선의의 경쟁이다. 함께 노력하고 살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기적이다. 나와 내가 속한 당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올림픽 정신을 배워야 한다. 올림픽 정신이란 이기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내가 졌으나 다음 기회를 희망하며, 내가 이겼을지라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인 것”이라며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나라가 발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경쟁이 있다. 바로 사랑이 있는 경쟁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무너진다”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렇다. 일본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니 둘 다 무너진다. 기독교 정신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경쟁이며 역사와 사회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런 사랑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오중복음·사차원의 영성, 오늘날에도 필요

세성형, 창립 35주년 성령포럼 개최



세성형 창립35주년 성령포럼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사)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이하 세성형)가 1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조용기 목사 성령운동과 한국교회 아젠다’라는 주제로 창립 35주년 성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은 백종구 박사(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회)의 사회로, 김 규 목사(관천위원회)의 기도, 이영훈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개회사(영상), 소프라노 이희정 전도사의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 소강석 목사(사예레교회)의 주제발표, 김삼환(여의도순복음교회)·박명수(서울신대 명예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안준배(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 원장) 박사의 발제, 테너 박주욱 목사의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영산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삼환 박사는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오중복음·사차원의 영성은 오늘날도 복음전파를 위한 매우 유용한 내용이며 형식”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삼중축복에서 핵심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사실은 축복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기복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몸이 강건할수록 영혼은 피폐해져 각종 이단적인 사상과 시류에 물들어지는 현대인들의 실존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시대에 더욱 필요한 복음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아울러 “오중복음의 핵심이 성령충만의 복음에 있다는 것은 오중복음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정통 삼위일체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차원의 영성이 폴 리파르의 해석학적 도구로 풀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사차원의 영성이 정교한 신학적 연구의 훌륭한 대상이 됨을 입증해 준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조용기 목사와 해방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명수 박사는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는 파산된 가정에서 자라 폐결핵을 앓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조용기는 새롭게 들어온 오순절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며 “절망에 빠진 조용기와 미국에서 들어온 오순절 메시지의 만남이 열매를 맺어 오늘날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 조용기 목사의 경험은 자신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기의 경험은 자신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와 같은 경험을 하였고, 이들은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들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선 나라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용기 목사의 이런 메시지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외쳐졌다. 그래서 절망가운데 있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조용기 목사와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한국과 온 세계에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오늘에도 역시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몫”이라고 했다.

한편, 포럼은 민경태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의 총평, 김창근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원광기 목사(그문)의 축도 순서로 모두 마쳤다. 장지동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외필제 230609-02066-ADP (23.06.09)

* KB 국민카드

성결대, 인도네시아 UPI대와 교육 협력 강화 MOU 체결

글로벌 교육시장 개척에 총력, 한국문화 활용해 국제화 역량 강화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UPI대학교(인도네시아 펜디딕안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UPI)에서 솔레후딘 총장(Dr. M. Solehuddin)과 학술 교류를 통한 양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 경쟁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도네시아 UPI대학교는 1954년 설립된 국립 대학으로, 한국어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명의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결대의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 대학과의 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양 교의 교류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콘텐츠를 활용한 연계 교육프로그램, 장단기 학부 교류 프로그램, 취업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상식 총장은 "성결대학교의 교육 국제화 역량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재고방안(Study



성결대-UPI대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김상식 총장, 솔레후딘 총장) ©성결대

Korea 300K Project)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UPI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 교육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한 K-Cult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결대의 국제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자

리매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결대학교는 UPI와의 업무협약을 인도네시아 교육시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판차실라대학교(Universitas Pancasila(UP))와도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양 대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지동 기자

백석대·백석문화대, 캠퍼스 복음화에 새로운 비전 제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가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캠퍼스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교직원예배 단상에서 강인한 부총장이 발표한 새 비전은 '학원복음화 2025/30/40'으로 명명되었다. 이 비전은 2025년까지 백석문화대는 30%, 백석대학교는 40%의 기독교인 비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목실 목사들과 직원들, 대학 선교단체 간사들이 함께 캠퍼스 노방 전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화목우주선'으로 명명되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에 실시된다.

최근 처음으로 시행된 노방전도에서는 교목 목사들과 기독교학부 선교부원들이 중심이 되어 비가 오는 날씨에도 120여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캠퍼스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백석대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 중 25명의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이에 더해 대학은 올해 교목을 추가 충원하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과 교수, 목사들이 함께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이에 더해 대학은 올해 교목을 추가 충원하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양평 오시면 아신대로 벚꽃 보러 오세요”

경기도 양평의 아신대학교(총장 정용열)가 양평 나들이를 계획하는 상춘객에게 아신대학교 캠퍼스길을 벚꽃 명소로 소개했다.

아신대의 벚꽃 길은 정문에서 후문까지 약 1km 거리에 조성되어 있다. 아신대는 "벚꽃 길을 걷고 있으면, 평온한 마음마저 갖게 된다"고 전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아신대는 4월 1일부터 새로 리모델링한 아신대 아카데미에서 벚꽃에이드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신대 벚꽃 길 ©아신대

이와 함께 '아름다운 신학대학교' 아신대학교 사진공모전도 함께 진행 중이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수여하게 된다.

아신대 관계자는 "벚꽃에이드를 마시면서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며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자연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신대는 올해 개교 50주년 맞았으며,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사회복지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국가고령인증제도 (NCSI) 아동도이부품 10년 연속취 (2014~2023)

THE NORTH FACE

MOUNTAIN JACKET

영수권을 완성하다

Waterproof Breathable

GORE-TEX

M'S GTX MOUNTAIN 3L JACKET 559,000

제품 문의 대리점 (02) 940-1158 백화점 (02) 940-1169 ■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thenorthfacekorea.co.kr)는 인터넷에서 노스페이스를 검색하세요.

챗GPT 인공지능 사용 윤리 10계명은?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 취득 1기 과정 진행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캠퍼스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백석대

국제미래학회와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회장 안종배)이 최근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다.

이는 챗GPT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지도하는 지도사 양성 자격 과정으로 이 민간자격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은 국제미래학회다.

국제미래학회는 국내 최초로 열린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과정에서 ‘챗GPT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 인류에게 유해하지 않고 유익하게만 활용되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적 공익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그 지침이 될 ‘챗GPT 인공지능 사용 윤리 10계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미래학회와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30명의 인공지능 윤리 위원들이 3년간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한다. 10계명은 아래와 같다.

- 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류의 행복이 목적이 된다.
- ②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사용한다.
- ③ 모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짓 및 편향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필터링한다.
- ⑥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⑦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 ⑧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권 내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 ⑨ 인간지능과 협업하되 인간의 개성과 특성이 반영된 독창적인 산출물을 사용한다.
- ⑩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공지능 제작임을 명시한다.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 과정 수료생들은 ①인류혁명 시대 챗GPT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②챗GPT 인공지능 가입 및 음성으로 사용하기 ③챗GPT 인공지능 시 작품 만들기 ④챗GPT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및 이미지 움직이는 영상 만들기 ⑤챗GPT 인공지능 자신의 아바타 만들기 ⑥챗GPT 인공지능 자사-작곡하기 ⑦챗GPT 인공지능 동영상 시나리오 만들기 ⑧챗GPT 인공지능 활용 동영상 만들기 ⑨챗GPT 인공지능 아바타 음성 더빙하기 ⑩챗GPT 인공지능 아바타 영상 제작하기 ⑪챗GPT 인공지능 데이터 코딩으로 엑셀 만들기 ⑫챗GPT 인공지능 PPT 만들기 ⑬챗GPT 인공지능 활용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마케팅 ⑭챗GPT 인공지능 활용 브랜드와 로고 디자인 만들기 ⑮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역할 및 지도 방법 등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익혔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중 희망자들은 등록민간자격증인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기 과정은 오는 20일 열리며 신청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사무국(02-2260-3730) 및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사이트로 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살롬나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 기독교 민족주의” 주제로 월례포럼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최근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동산교회(유종필 목사 시무)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제로 제54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기독교학술원장이며 숭실대 명예교수인 김영한 박사가 맡았다. 월례포럼은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했

으며 강연에 앞서 곽혜원 박사(경세대 초빙교수)가 한국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배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가 ‘담임목사 한국사회와 안정을 위하여, 권오환 목사(서울대 학원선교사가 ‘세계선교와 난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조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영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기독교적 정신으로 건국

되었고, 3.1운동을 주도한 애국자들이 역시 이승훈, 신석규, 김선주, 김마리아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며, 임시정부의 헌장에도 기독교 정신 잘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탄생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상기하며 기독교인들의 자부심과 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구세군, 부활절 맞아 서울역과 남대문 쪽방촌서 나눔 봉사 진행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이하 구세군)은 지난 31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역 구광장과 남대문 쪽방촌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나누면'과 자장면을 제공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부활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눴다고 했다.

이번 부활절 나눔은 장만희 사령관을 비롯, 대한병영 구세군 사관 및 서울제일 영문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구세군은 서울역 주변 노숙인(350박) 및 남대문 쪽방촌(250박) 주민들에게 나누면 총 600박스를 전달했다.

특히 구세군은 "사랑의 밥차를 통해 만들어진 자장면을 노숙인들에게 한끼 식사로 대접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이 느

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장만희 사령관은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행사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을 또 구원하기 위함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나눔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으며 좋겠다"며 부활절 나눔의 의미를 설명했다.

구세군은 해마다 부활절을 맞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쪽방촌과 무료급식소를 찾아 생필품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구세군의 '나누면'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구호 이재민, 주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용도로 구세군에서



구세군이 식사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구세군



구세군이 부활절 맞아 나누면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구세군

나눔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라면

한편, 구세군은 12월 연말 자선냄비와 연중 정기후원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의

료지원 캠페인,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

원, 재해, 재난지역 긴급구호 등 국내외에 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평택성시화운동본부 새 대표회장에 최충원 목사

제14차 정기총회 열려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경기도 평택성민교회(담임 최충원 목사)에서 제 14차 정기총회를 열어 새 대표회장으로 최충원 목사를 추대했다. 사무총장은 최성규 목사를 위촉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선 전 사무총장 김정덕 목사의 인도로 박태웅 목사(평택남부지역기독교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 평택성민교회 여성중앙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배창돈 목사가 마태복음 28장 18-20절 본문,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시간만 보낼 수 있다"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성시화운동본부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최충원 목사. ©평택성시화운동본부

이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교회의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다"며 "교인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도전했다.

또한 "영혼을 전도한 다음에는 잘 양육을 하여 예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해야 한다"며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님의 제자로 세우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며 "성시화운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승규 목사(평택성시화운동본부 총회장)는 "평택시 60만 시민,

750여 교회를 대표하는 평기총과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하나가 되어 평택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자"고 말했다.

예배는 대표본부장 이준철 장로의 광고와 직전 대표회장 강현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최충원 대표회장이 이임하는 배창돈 목사와 김정덕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윤문기 목사와 최세근 목사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배창돈 목사는 최충원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단을 축복했다. 최충원 목사는 "평택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그동안 잘 해온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청소년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겠다"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운동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조성돈 교수 "교회 부흥하려면 윤리적인 교회 돼야"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사신)가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홈페이지에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주제의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가 이리저리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은퇴 목사와 신임 목사의 갈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물러나면서 해결이 되곤 했다"며 "그런데 요즘은 은퇴 목사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서로 다른 후보를 맡았던 교회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툼이 크다"고 했다.

이어 "신임 목사가 오는 데 영향을 끼쳤던 그룹의 기독교적 요구와 반대했던 그룹의 비협조 등이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그 다툼은 정리가 안 된다.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좀 오랜 교회들은 후임을 정하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교회가 깨지고, 심지어 무너진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요즘 목회자들의 문제도 나타난다. 은퇴 목회자의 과도한 예우도 문제고, 너무 야박한 대우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역 목회자의 도덕적인 문제 등도 자주 등장한다"며 "또 교회의 편향된 정치화도 문제가 되고, 줄어드는 교인에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 관리



도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건지, 또는 있어도 묻혀 버렸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폭풍을 겪는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전쟁터이니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라며 "이들이 찾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다. 신앙심을 고조해 줄 교회도 아니고, 충성을 요구하는 교회도 아니다. 그냥 별 탈 없이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회다. 목사의 설교에 상처받지 않고, 장로의 기도에도 시름 들지 않는 그런 교회다. 기존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회다.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 조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교회를 찾는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간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인 교회가 되면 된다"며 "교회가 합리적이고 무리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정착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부흥은 이어진다. 부흥의 비결, 아주 쉽다. 하지만 쉽지 않은 비결"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천기총,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안준호 목사)가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71년에 설립된 천기총은 지역 내 700여개 교회, 13만여 명의 성도들이 소

속해 있다.

천기총이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매년 예수 부활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큰잔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개최한 '2024 천안시민을 위한 새생명 문화축제'에서 모금한 것이다.

안준호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과 물품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 내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후원금을 전달한 후. ©천안시복지재단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시카고 시내에 '부활절 기념' 대형 십자가 설치

미국 시카고 시내에 높이 5.8미터의 십자가를 설치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제17회 연례 '지저스 인 데일리 플라자'(Jesus in Daley Plaza)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다수의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사' (Thomas More Society)가 후원한다.

이 단체의 회장이자 수석 변호사인 톰 브레차(Tom Brejcha)는 성명에서 "종교가 점점 더 밀려나는 상황에서 공공 광장에 이러한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차는 "부활절 기념행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종교적 신앙 표현"이라며 "이는 고(故) 리처드 존 노이하우스 목사(Richard John Neuhaus)가 39년 전에 자신의 책 『벌거벗은 공공 광장』(The Naked Public Square)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이하우스는 미국의 공공장소가 종교나 종교적 관습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채로 박탈되는 것을 한탄했다"면서 "다른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기독교 휴일을 기념하는 것이 마치 '비민주적'이거나 '미개한' 것처럼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늘날의 점점 더 세속화되는 환경에서 이것은 어느 때보다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



2023년 시카고 시내에 전시된 십자가. ©토마스모어사/시애틀

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그 걱정들을 해결하고 답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을 주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토마스모어사/시애틀 뿐만 아니라 태피스트리펠로십(Tapestry Fellowship), 시티퍼스트재단(City First Foundation), 그리고 올해 십자가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칼(Karl)과 낸시 프리츠(Nancy Fritz)가 후원한다. 이 전시는 28일 밤에 세워져 일주일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주일에는 초교파적 부

활절 일출 예배가 이 십자가 앞에서 진행된다.

브레차는 이 전시물이 정부 지원이나 승인 없이 민간 자금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제로 [1988년]에 미국 지방 판사 제임스 B. 파슨스(James B. Parsons)는 시카고 데일리 플라자에서 종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1988년 11월 파슨스 판사는 시카고 공공건축위원회가 데일리 플라자에 예수 탄생 장면(Nativity)과 메노라(Menorah, 이스라엘 일곱 촛대)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슨스는 당시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표현이 정치적 표현과 동일한 종류의 보호를 받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고 밝혔다.

토마스모어사/시애틀의 변호사들은 작년 성탄절 기간에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주 의사당에서 예수 탄생 장면을 후원하려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무료로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브레차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주 의사당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전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행사이며, 이는 행사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나 잊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유진 김 기자

휴스턴 교회 연합, 고난주간 특새를 통해 부활의 기쁨으로

휴스턴 기독교 교회 연합회 주최,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성황리에 성료



경배와 찬양으로 연합회 집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현장의 모습. ©이창한 기자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휴스턴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주최한 지역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새벽연합예배를 성황리에 마쳤다. 백 여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은혜의 물결로 이어진 한 주간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활의 증인 (witness of the resurrection)'의 주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씀을 선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월요일부터 매 집회 때마다 백 여명의 성도들이 모였으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졌으며, 말씀 후 휴스턴의 성시화를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의 현상이 되었다고 전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연합 기도회, 은혜의 소낙비 내려

김덕억 목사 (동산연합감리교회): 마태복음 22장 23-33절, "부활, 하나님의 능력"- 이광재 목사(휴스턴형제사랑교회): 요한복음 20장 11-18절,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정상준 목사(휴스턴사랑의 교회): 요한복음 11장 25-26절, "부활의 증인,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창한 목사(케이티침례교회):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일에 증인이로다"- 궁인 목사(새누리교회): 마가복음 15장 33-41

절, "나는 보았습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사회자(이창한 연합회 총무)의 인도에 따라 일제히 "할렐루야"와 박수로 화답하며 영적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영적 축제와 교회간 교제의 장 마련 예배는 말씀 뿐만 아니라, 연합회와 각 교회에서 참여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연합회 여성분과(최순례 권사)와 새누리 교회 여성교회(신성화 집사)가 준비한 풍성한 친교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영적 뿐만 아니라 풍성한 (어우) 교제의 현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메시지

연합회 회장 홍형선 목사(휴스턴 순복음교회)는 "교회 간의 벽을 허물고, 그

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참여자와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 헌신적으로 교회와 섬김을 베풀어 준 새누리 교회의 궁인 목사(연합회 부회장)는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현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 하심을 깨닫는 한 주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활 주일 새벽연합예배는 휴스턴 순복음 교회 찬양팀과 홍형선 목사(연합회장)의 설교로 진행되며,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난 주간 특별새벽기도 예배는 지역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뜨거운 영적 현장인 것으로 지역 교회는 평가했다.

이창한 기자

크라이스트 대학교의 새 학기, 다채로운 과정으로 신학 지평 넓혀



텍사스 주 교육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크라이스트 대학교(Christ College, 박두욱 학장 사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평신도를 위한 보수신학 성경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바 있다. 이제 이 대학은 김진선 교수의 주도하에 예배음악학과 내 교회 실용음악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이우연 교수(조직신학)의 기록론, 십자가와 부활 과목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신학 교육의 다양성과 깊이를 한층 더 강화한다.

2024년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에도

활발히 학생들을 모집 중인 크라이스트 대학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 성경적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탁월함을 추구한다. 이번 새롭게 추가된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와 실용적 기술을 제공하며, 믿음의 중심에서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진선 교수가 지도하는 예배음악학과 교회 실용음악 과정은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예배음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예배를 리드하

는 데 필수적인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예배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이우연 교수의 조직신학 입문, 십자가와 부활 과목은 성경의 핵심 주제와 인물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신앙생활에 있어 성경적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들은 학생들이 성경과 신앙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교회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적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크라이스트 대학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신학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실천하며, 교

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학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크라이스트 대학교 공식 웹사이트(Christcollegeu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라이스트 대학교의 이번 학기 과정은 기존의 신학 교육에 더해, 예배음악과 성경의 깊은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과 실천적 기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게 다지고,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필요한 다방면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전망 평가하고 있다.

이창한 기자

시애틀 온누리교회 봄 사경회

오는 4월 26일(금)- 28일(주일), 오대식 목사 강사



높은뜻 덕소교회 담임 오대식 목사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김재형 목사) 봄 사경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사경회 강사로는 한국 높은뜻 덕소교회 담임 오대식 목사가 나서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6편의 설교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높은뜻덕소교회는 2018년 높은뜻정의교회로부터 분립되어 온 교회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봄 사경회

일시 : 4월 26일(금)- 28일(주일) 주소 :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문의 : (206) 363-6469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법>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국 박해 교회와 성도·교육·전쟁 종식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모잠비크, IS 테러로 5개 마을에서 기독교인 10명 살해돼

모잠비크 북부의 5개 마을에서 이슬람국가(IS) 세력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10명이 살해됐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주에 위치한 5개 마을에서 자행된 이번 공격은 이미 1월 초에 전 세계를 겨냥해 테러 공격을 지시했던 IS의 메시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잠비크 북부에서 IS 세력들은 “이교도를 발견하는 대로 싸우고 죽이러”는 오디오 메시지를 내보내며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1월 3일, 은토토(Nitoto) 마을에서 기독교인 3명이 숨졌고 교회와 60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다. 1월 5일, 침방가(Chimanga) 마을에서 기독교인 3명이 살해당했고 70채가 넘는 집이 불태워졌다. 이들 후 이 마을에는 또 한차례 총격이 발생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40채의 집이 불탔다. 1월 4일에는 차이(Chai) 마을과 리타만다(Litamanda) 마을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16채의 집이 불에 탔다. 1월 5일에는 친다(Chinda) 마을이 공격을 받아 2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잠비크 북부에서는 지속적인 반기독교 폭력과 공격으로 약 1,8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잠비크 기독교 마을의 신자들이 테러와 공격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참 소망과 평안을 경험하고,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서도 무슬림들과 비기독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arnabasaid.org)

◇나이지리아 기독교 고아원,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소송 중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고아원을 운영하는 타르파(Solomon Tarfa) 교수와 그의 아내가 이전에 돌보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4번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르파 부부는 1996년 나이지리아의 카노(Kano)주에서 두 머시(Du Mercu) 고아원을 설립했다. 두 사람은 고아와 빈곤층 어린이들의 사회적 필요와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년이 넘도록 고아원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에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타르파 교수를 고아원 등록 위조와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했고, 고아원에서 보살피고 있었던 27명의 아이들이

지 정부 시설로 이송해 버렸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던 타르파 교수는 2021년 6월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워왔던 아이들은 정부 시설로 옮겨진 뒤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받았고, 기독교인 이름은 이슬람식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의 건강이나 질병 상태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도 화상을 입고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타르파 부부는 투옥 기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27명의 아이들이 하루속히 고아원으로 돌아오고, 앞으로도 이 고아원을 통해 수많은 아이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ersecution.org)

◇세계선교를 향한 나이지리아 선교사의 장점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약 1억 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나이지리아복음선교협회(NEMA)에 등록된 159개 단체를 통해 약 15,6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NEMA에서 훈련과 동원, 연구 사역을 맡고 있는 올란르와주(Adeoluwa Felix Olanrewaju) 박사는 15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협력하여 앞으로 기독교 인구의 10%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1982년에 결성된 NEMA는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북부와 동부,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31개국에 4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화 적응과 언어적인 면에서 탁월했던 나이지리아인들의 장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올란르와주 박사는 나이지리아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 영적 전쟁 등 성경적 제자도에 대한 큰 열망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와 이슬람, 부족과 도시 문화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적고, 미전도종족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이질감도 적다고 평가한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다국어 사용에 세련된 언어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착박한 환경에서 자라온 선교사들은 타국 선교지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성과 최소한의 지원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나



IS의 테러로 모잠비크의 기독교인 집이 불타고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해 테러 공격을 하고 있는 IS는 지난 1월 여러 차례 5개 마을을 공격하여 총 10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최소 180여 채의 가옥을 불태웠다. ©MEMRI

◇우간다, 기독교로 개종한 부부 살해 당해

2월 2일, 우간다 동부에서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부가 살해당했다. 이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앙을 이유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8세의 남위오(Twaha Namwoyo)와 27세의 카투코(Nadiimu Katooko) 부부는 우간다 키부쿠(Kibuku) 지역의 부랄라카(Bulalaka)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했던 친구는 이 부부가 지난해 12월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비밀을 유지한 채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2월 2일 오전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역 경찰 대변인은 두 사람이 전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의 공격을 받아 칼에 찔리고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됐고, 집 안에 숨어있던 네 명의 아이들이 함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개의 정검도와 도끼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웃들은 이것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무슬림들의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모를 잃은 네 명의 자녀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고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morningstarnews.org, dailyexpress.co.ug)

◇아프리카연합, 2024년을 교육의 해로 지정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을 '교육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이뤄왔던 노력에 더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전체 초등학교 이수율은 52%에서 67%로 증가했고, 중학교를 이수한 비율도 35%에서 50%로 증가했다.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도 23%에서 33%로 늘어 1970년에 80만 명에 그쳤던 고등학교 이수자들이 현재는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연합은 올해를 교육의 해로 지정하면서 여전히 빈약한 교육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초중교육을 마치더라도 어린이 중 20%만이 충분한 문해력을 갖출 뿐이었다. 여자는 30%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남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도 2020년 이후 부채 상환과 맞물려 평균 14%가 감소했고, 교사 훈련이나 급여, 교육 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 환경의 불안도 커다란 숙제 중 하나이다. 글로벌 분쟁 감시기관인 ACLED에 따르면, 2023년에 아프리카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폭력 사건이 41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20%가 증가한 수치였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40%가 15세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반 마련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theguardian.com, reliefweb.int)



두 머시 고아원 아이들. 타르파 부부는 20년 넘게 고아원을 운영했으나, 2019년 나이지리아 정부가 범죄 혐의를 씌우고 아이들을 정부 시설로 이송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타르파 교수는 이슬람 개종을 강요 받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소송 중이다. ©persecution.org

◇호주 노숙자 사망, 일반인에 비해 30년 이상 빨라

호주에서 노숙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가디언지(Guardian Australia)는 국립코로나정보시스템(NCIS)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노숙자 사망을 조사했다. 627명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사망 연령이 남성은 45.2세, 여성은 40.1세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호주 남성의 평균 사망 연령 79세, 여성의 경우 85세와 비교할 때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2월 말, 울루물루(Woolloomooloo) 근교에 있는 건강진료소인 매튜탈보트호스텔(Matthew Talbot Hostel)에서도 4,000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사망 연령이 55.9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매튜탈보트호스텔의 진료 책임자인 스미스(Julie Smith) 박사는 노숙자들이 25-30년 일찍 사망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이들의 조기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함께 참여한 정신과 의사 닐슨(Olav Nielsens) 박사는 약물 남용이나 정신 병력이 있는 노숙자의 경우 이보다 더 사망 연령이 낮았다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호주 당국이 노숙자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이 시행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들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theguardian.com)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교회와 종교 시설 630개 피해 입어

1월 말, 제5차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RF Summit)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종교자유연구소(IRF)의 자료를 인

용해 전쟁이 발발하고 2년 동안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 시설 630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 2월까지 494개의 교회와 종교 시설이 파괴됐고, 지난 1년 동안 150개가 추가돼 2024년 2월까지 630개의 종교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회에 속한 시설이 2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음주의 교회 206곳, 여호와의 증인 110곳, 가톨릭 교회 41곳, 기타 27곳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2명의 성직자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추방되었고, 8명이 포로로 잡혔다가 5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보고서에 담겼다. 도시별로는 도네츠크에서 146개의 교회가 파괴돼 가장 피해가 컸고, 루한스크 83개, 헤르손 78개, 키예프 73개의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다.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의 회장인 우크라이나 출신인 라쿠바(Sergey Rakhuba) 목사는 전쟁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들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엄청난 압력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종교 박해를 세 단계로 언급했는데,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1단계에서는 러시아군이 전략적 이득을 취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교회들을 점거했다는 것이다. 2023년 10월까지 진행된 2단계에서는 회유와 협력을 유도하는 가벼운 위협과 함께 이를 거부하는 성직자들에게 대해서는 납치와 체포, 구금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3단계에서는 교회를 노골적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무너진 우크라이나 교회가 하루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협력해 나가고,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 이전보다 더 튼튼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美 목회자,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점수 기록”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직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교인들에게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2023년 가을 40개 이상 교단의 기독교 목회 지도자 1천67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담겼다.

릴리 엔도우먼트(Lilly Endowment Inc.)의 지

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종교와 평화 하트포드 국제대학교(Hartford International University for Religion and Peace)의 하트포드종교연구소(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상당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수준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이전 보고서에서 밝혀진 목회적 불만 수준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0에서 10까지의 다양한 건강 및 복

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추가 항목이 포함된 11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목회자들은 일반 대중에 비해 ‘관계성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일반 대중에 비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2022년 여름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표본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목회자들은 우리가 비교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 대중보다 더 나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더 평균 수준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 대중보다 0.5점 이상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성직자와 대중 사이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항목’으로, 10점 만점에 성직자는 평균 8.6점, 대중은 평균 6.8점(1.8점 차이)이었다”고 덧붙였다.

목회 지도자가 일반 대중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나는 내 관계성에 만족한다’는 항목으

로, 0.1점 차이였다. 11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건강 점수는 목회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0.7점 높았다. 이러한 비교에 따르면, 이 연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주 하루 휴가를 내는 목회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연구자들은 이것이 목회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봤다.

이미경 기자

“팀 티보우,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아이티 장애아동 59명 대피시켜”

최근 몇 주 동안 아이티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전 미식축구리그(NFL) 선수인 팀 티보우(Tim Tebow)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59명의 장애아동을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티보우와 그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팀 티보우 재단(Tim Tebow Foundation)은 성매매범에 맞서 싸우는 특공대 단체인 센티넬(Sentinel) 재단과 힘을 합쳤다고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발표했다.

티보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대피한 아이들 중 한 명을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그들은 위험에서 자유로워졌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덧붙였다.

티보우는 센티넬 재단 외에도 자메이카 정부와 미션 오브 호프(Mission of Hope), 아이티원(HaitiOne),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신매매 방지국 등을 포함한 기타 조직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리 밀스 플로리다 의원도 참여했다.

밀스 의원은 “나는 항상 이와 같은 단체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행제’라며 ‘취약한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임무는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임무”라고 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밀스 의원은 선교사 미리암 치노티(Miriam Cinotti)를 포함해 아이티에서 미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한다.

센티넬 재단 운영 책임자인 오스틴 홉스는 폭스뉴스에 그들의 노력이 미국과 기타 국가가 부과한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홉스는 “우리 임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주권국의 급속하게



전 NFL 선수 팀 티보우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하원 사법부 범죄 및 연방정부 감시 소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C-SPAN/유튜브

변화하고 강화되는 제한조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티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리엘 헨리 총리가 점점 커지는 혼란 속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이 최근 몇 주 동안 강단 폭력사태가 아이티를 뒤흔들고 있다.

아이티에 갇힌 이들 중에는 미국인 선교사 질 돌란(Jill Dolan)과 그녀가 임명한 몇몇 자녀도 있었다. 그녀는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복음주의 인도주의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은 심각한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에 직면한 아이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어린이들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아이티에서는 5천명 이상이 사망했다. 2월 29일 폭력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한 이래로 1만5천명 이상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난민이 된 아이티인의 수는 약 36만2천명에 이르렀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폭력이 멈추고 도로와 병원이 열리면 생명을 구하는 물품이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12만5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러시아, 연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2명 사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대해 연일 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러시아 공중공격으로 리비우와 하르키우에서 2명이 숨졌다고 AP 통신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부 리비우주 막심 코지츠카이 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공격으로 건물에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최소한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올레 시나예후 보우 지사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가스 충전소에 떨어지면서 19살 남성이 변을 당했다

고 전했다. 남부 오데사주 올레 키페르 지사는 격추된 러시아 무인기가 에너지 시설에 화재를 일으키면서 수십만명이 정전상태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키페르 지사는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으로 17만 가구에 공급하는 전력이 끊겼다고 우크라이나 최대 민영 전력회사 DTEK가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새 날려보낸 사해드 무인공격기 11개 가운데 9대를 격추하고 순항미사일 11발 중 9발을 떨어뜨렸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사 센트레네르고는 전날 하르키우 지역 최대 발전소인 즈미야우 열발전소가 러시아 포격으로 완전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12만명이 정전상태에 있다고 센트레네르고는 소개했다.

앞서 3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내 DTEK 화력발전소 3곳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 공습 당한 화력발전소의 시설과 장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발전과 송전이 중단됐다. 이재준 기자

필리핀, 남중국해 해상보안 전력 강화...“중국 도발 확대에 대응”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이 해상안보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중앙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궁은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남중국해 해상안보를 증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남중국해에서 고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대통령령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해양 영역의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필리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린 영토는 물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분쟁이 격화하면서 영토보전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해상안보에 관한 조정을 확대하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명령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가연안 감시위원회’를 국가해사위원회로 개명, 확대 개편해 해상안전의 강화를 겨냥한 정책과 전략, 지침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해사위원회에는 안보담당 보좌관, 법무장관, 국가정보조정국 수장, 남중국해 태스크 책임자가 추가로 참여한다.

대통령령은 국가해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해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군을 지정해 실제적인 무장역량을 확충했다.

남중국해 필리핀군의 거점인 아얌초(仁愛礁(런아이자오) 세컨드 토마스 아얌초) 부근 해역에서 3월 5일과 23일 중국 해경선이 보급활동에 나선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필리핀 선원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재준 기자

佛, 병력수송 장갑차 수백대·아스터 방공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공급

프랑스는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병력수송 장갑차 수백대와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과 CNN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프랑스 국방장관은 라 트리뷴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로 병력수송 장갑차 수백대와 대공 미사일을 공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했다. 그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르코르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길게 늘어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VAB 장갑차가 필요하다. 부대에 병력을 이동하는 기동력을

갖게 하는데 절대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군은 현재 1970년대 후반에 배치하기 시작한 구형 병력수송 장갑차를 신형 장갑차 그리폰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르코르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VAB 장갑차도 아직 충분히 운용 가능한 상태라면서 2024년 안이나 2025년 초에 수백대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시민도 활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

2024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원×3개월

진로 탐색 및 커리어 설계 지원
취·창업 역량 개발 교육 제공
취업알선

1차(2월), 2차(4월), 3차(5월) 모집 예정

우먼업 인턴십

생활임금×3개월

채용연계형
육아휴직 대체근로형
프로젝트형

최대 3개월 지원

우먼업 고용장려금

300만원×1회

인턴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일생활균형지원 컨설팅 지원

채용 연계 3개월 후 지급

서울우먼업

윤 “의대 2000명 증원,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전공의 안 돌아올 것”이란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안에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

를 해소하려면 지금부터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해 현재와 미래 상황을 꼼꼼히 고려했다”며 2000명 증원 규모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매년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와 소통할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정치·유불리와 무관한 국민 보건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

쳤다.

한편 대통령 담화와 관련, 김창수 전의 교협 회장은 “저희는 현재는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안 소송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 및 소진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의사 단체에서는 보다 격한 반응도 나왔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대통령이 의사들

다 죽어갔다는 데 힘 없는 의사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한국 의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놔둘 수 없으니 (기존 조치들) 그대로 갈 것”이라며 주 52시간 진료 축소와 집단 사직서 취항 등 그간의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방 회장은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한국 의료는 망한다. 오늘(1일)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항할 수 있는데까지 저항해야겠지만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담화,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담화를 두고 “불통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자 참석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돼 의료현장 혼란은 가중시키고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김건희 여사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숫자를 발표했다가 의료계 반발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2000명 숫자 집착을 버리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계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소통·합리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며 혼란을 초래하면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국 기자

양당 지지율 격차 7.7%p... 민주당 43.1% vs 국민의힘 35.4%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3.1%로 집계되며 국민의힘(35.4%)을 7.7%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3%p 상승한 43.1%, 국민의힘은 1.7%p 내린 35.4%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당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합당 2.7% 순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권역별로 국민의힘 지지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인천·경기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 서울에서 올랐다. 연령대는 60대, 40대, 20대에서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 부산·울산·경

남,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서울에서 하락했다. 20대에선 7.6%p 오른 41.3%를 기록했다.

최종태 리얼미터 연구원은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고, 민주당은 정책 선명성을 강조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조 심판론’, 양문석 후보 등 후보자 논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한 “소상공인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억원으로 상향”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파격적인 2억원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분담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사각지대”라며 “특수고용자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기대출 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며 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부산에 1992년 같은 영광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사자구장 재건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김영호 “북한이 민족 부정해도 역사·언어로 본 정체성 사라지지 않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은 1일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통일은 헌법

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통일을 부정하고 핵미사일로 위협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억누르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체주의 독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유와 인권은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가치”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과 올해 초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개념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각종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통일 지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북한이 민족을 부정해도 역사와 언어로 본 민족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일 노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용국 기자

3월 수출 3.1% 증가... 반도체 21개월만에 최고치

지난달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116억7000만 달러를 달성하며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났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

를 기록했고, 10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1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물량으로 보면 40% 늘어난 추세”라며 “가격도 지난해보다 25% 올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등 IT기기와 선박, 바이오센스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와 이차

전지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미국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 역대 3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뒤따라하고 있다.

1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6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18억 달러 개선됐다. 이나래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 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진당 잔여 세력, 원내 진입 꺾어… 총선은 제2 건국전쟁”

한번, 1일 성명 발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사진)이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하면 결국 이를 악용한 자들이 타인의 목숨과 인권을 짓밟고서라도 그릇된 신념을 달성하려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인류의 비극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도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폭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벌인 6·25전쟁 이후 남북이 여전히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과 이를 구체화한 헌법질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며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해산된 위헌정당과 같은 이름의 정당은 등록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 구성원들의 정치활동도 규제되어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였다가 적발되어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 세력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다시 원내 진입을 꺾어

고 있어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 이후 그 잔당들은 자신들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앞세우면서 방자하게도 해산된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카피레이드를 자행하기까지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혹자는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너무 과거의 냉전적 개념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제주간첩단

사건에서 보았듯이 반국가세력은 여전히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합법적 정부를 퇴진시키자고 선동하는 집회를 끈질기게 주도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적공작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둑떼, 사기꾼, 범죄자, 전과자, 파렴치범, 위선자, 인적파탄자들이 총선을 통하여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구에 무법 아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질서

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종북주의자, 친중 사대주의자 등 반역 세력이 과거 통진당처럼 헌법기관 내에 꼬리를 트는 일이 생긴다면 애써 가꾸어 온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얼마 안 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건국일치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이들 반역세력의 국회입성을 결단코 저지하여야 한다”며 “유권자 어느 누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생명의전화, 청년 서포터즈들과 함께 2024 자살예방 캠페인 시작

생명의전화는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라이프라인 서포터즈와 함께 생명을 밝히는 길은 ‘2024 자살예방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제주캠프는 매년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활동 중인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는 2020년도부터 캠페이너로 활동 중이며 2030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27인, 걸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동참한 워킹맘 전문 코치진 3인 등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전문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주

변의 관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있는 청년 서포터즈들이 앞장서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35.4명이고, 10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7.2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2년 손상유형 및 원인통계(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이 지난 2012년 대비 평균 15.4%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현실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했다”고 했다. 서포터즈들은 제주 올레길 코스로 7.2km를 걸으며 구간마다 깃발에 적힌 생명을 살리는 길은,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을 낮춘다!를 외쳤다고 한

다.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김경민 크루는 “매년 서울 도심과 한강을 걸으며, 생명사랑 밤길걷기 페이스메이커로 활약하던 청년들이 벌써 5년째 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생명사랑 캠페인이 계속되는 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다짐하며 매일을 밝히는 걸음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의전화 최정미 법인 과장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장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생명의전화는 전 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오는 5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

예방 ‘함께고워크’ 캠페인과 9월 범국민 인식개선 자살예방캠페인 ‘제19회 생명사랑밤길걷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생명의전화는 1976년 9월 개원하여 국내 전화상담기관의 모태가 됐다. 전국공통상담전화 1588-9191, 한강 다리 위에 설치되어있는 SOS생명의전화, 청소년 상담센터 ‘라임’등을 포함한 상담사업과 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센터와 같은 여러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제주캠프에 참석한 청년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크리스천 청년 커뮤니티 ‘크로스 디사이플스’ 독서모임 참여자 모집

크로스 디사이플스(Cross Disciples, 이하 CRD)가 2024년 1학기 2세션 독서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

2030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주중 훈련 공동체로 만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질적 삶의 변화들과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CRD 독서모임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크로스 디사이플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rossd.org>)

2024년 1학기 CRD 독서모임은 오는 6월에 1세션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오는 15일부터 5주간 새롭게 2세션 독서모임이 시작된다. 2세션 독서모임은 ▲크리스천 지갑사용설명서 : 전자기 훈련 ▲일과 삶을 콘텐츠로 표현하는 법 : 크리스천의 차별성 ▲크리스천 인사이트 아웃 : 내면의 나를 만나다 ▲일·가족·시너지 등 재정, 인간관계, 결혼, 커리어, 퍼스널브랜딩과 같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주제로 개설된다.

삶의 현장 속,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빛으로라는 가치 아래 CRD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함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CRD 리더 정기모임 / 제2회 씨알이의 날 / 제12회 사랑의상자 @크로스 디사이플스

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미션을 두고 있다. CRD는 “크리스천 청년 세대에 게 플랫폼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CRD는 2017년부터 크리스천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들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독서모임을 전개하며 총 365개의 독서모임을 개최하고, 4,120여 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만나왔다. 더불어 6,500명 가량의 SNS 팔로워들에게 주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생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크리스천 청년 네트워킹 행사 씨알이의 날, 홈플러스 사랑의상자, 자자 초청 토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

해 크리스천 청년 세대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중 훈련 공동체를 마련해주고 있다.

지난 학기 참여자들의 독서모임 재참여 의사 및 지인 추천 의향은 97.7%로 나타났다. 참가자 A는 “확실히 혼자 독서할 때보다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나눔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CRD 정현희 대표는 “앞으로도 크리스천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돕고, 하나님 나라를 품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 함께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좋은교사운동, 8월 6일부터 제14회 ‘기독교사대회’ 개최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에서 열 네 번째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았던 오프라인 기독교사대회를 다시 6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여는 기독교사대회로, 그동안 힘겨운 교육 현장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던 기독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4 기독교사대회는 일반교사는 물론, 예비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해외 기독교사들도 일부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 신청은 기독교사대회 등록 홈페이지(<https://camp.goodteacher.org/>)에서 가능하다. 1차 등록 마감은 5월 23일, 2차 마감은 6월 24일, 3차 마감은 7월 24일이다.

올해 기독교사대회는 한성준·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각각 주제강의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감기서·최과교회 목사도 행사 기간 동안 세 번의 저녁 설교

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50여 개의 연수 강좌도 펼쳐질 계획이다. 연수 강사 대부분은 좋은교사운동 회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고민과 실천을 연수 강좌에서 전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과 임용 준비생을 위한 예비 기독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됐다. 기독교사 교단에 서기 전 무엇을 준비하고, 선배 기독교사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 등을 나누는 ‘학교급별 만남’이 준비됐다. 또 선배교사들의 후원으로 예비교사들의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동아보험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동아보감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무법천지’ 아이티에서 미국 선교사 다수 구출돼

지난 2월 말 갠단들이 카리브해의 섬 나라 아이티를 장악한 후, 밤이 묵인 미국 선교사들과 시민들이 몇 주 만에 구출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남편 라이언과 함께 아이티에서 선교사로 일해온 러브어네이버 미니스트리(Love A Neighbor ministry) 사역자 질 돌란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자신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임을 밝혔다.

돌란은 “23일 밤, 우리는 실제로 (구출이) 이뤄질 거라는 전화를 받았다. 특정한 시간과 착륙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요청이었다”라며 “(남편) 데슬린과 나는 어느 때보다 더 희망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돌란은 24일 밤 9시경에 플로리다에 도착했지만, 입양 과정 중이었던 몇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이티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아이티의 위기는 갠단이 존재하는 곳을 훨씬 넘어섰다. 그 나라에 대한 통제력과 전국에 화물 및 기름의 자유로운 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물가 폭등, 사업 폐쇄, 은행 중단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티에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했다.

돌란은 “24일 동안 포르토프랭스에 갇혀 있던 우리 가족 5명은 위협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입양 과정 중이었던 세 명의 아이들과 고아원에서 우리가 돌보는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라며 모금 웹사이트 ‘구펀드미’(GoFundMe)를 통해 후원을 호소했다.

지난 달, 기독교 인도주의 사역인 ‘미션 오브그race’(Mission of Grace)와 함께 아이티로 여행한 9명의 선교사 중 1명인 나탈리 크로스도 최근에 구조되었다. 크로스 선교사는 WFTV 9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명의 고아를 안전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주민들이 갠단 폭동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TODAY 보도 화면 캡처

게 보호하기 위해, 산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돕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티에서의 선교 활동으로 예정된 2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에 가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있는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FTV 9 보도에 따르면, 갠단 폭동 이후 약 500명의 플로리다 주민이 아이티

에 갇혔으며, 현재까지 약 185명이 구조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는 “최근의 폭력 증가로 인해 살인, 납치, 강간 등 인권 침해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정치적 교착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아이티 및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위기로 인해 의료 시스템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가 거의 붕괴되었다. 수도권에 100명 이상의 결핵 환자를 수용하던 아이티 국립대학병원 및 요양원을 포함한 총 18개 의료기관이 폐쇄되었다”며 “이들은 무장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HCR은 “동일한 상황은 아르티보니트와 일부 지역에도 적용된다. 그곳은 갠단 폭력으로 인해 10개 이상의 의료 기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병원들은 불에 탔으며, 의료 인력은 살해 또는 부상을 입거나 납치되고 있으며 기본 의료 용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OHCHR는 보고서에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포르토프랭스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약 1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한되었다”며 “특히 아이들에 대한 폭력 상황은 우려스럽다. 아이들은 갠단의 공격으로 죽거나 총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갠단이 무장 공격을 수행하는 데 아이들을 이용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이티 담당 국장인 장 마틴 바우어는 아이티에서 “식량 부족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14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 직전에 있다”고 유엔뉴스를 통해 밝혔다.

유진 김 기자

‘앨라배마 교회 방화’ 중국인 용의자 ‘징역 8년’ 확정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교회에 방화를 시도하고 불범으로 총기를 소지한 중국인 여성이 연방 교도소에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 검찰청은 지난 22일 사오친 연(Xiaojin Yan, 3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형 102개월을 선고했다.

연은 2021년 9월 몽고메리 퍼스트 배티스트처치(First Baptist Church of Montgomery)에 들어가 건물 여러 곳에 불을 질렀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전까

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조사에는 몽고메리 소방 구조 수사관,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조사관, 미국 보안관 걸프 해안 지역 도망자 테스크 포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이 참여했으며 몽고메리 경찰의 지원이 있었다.

몽고메리 퍼스트배티스트처치의 담임 목사인 마크 베테아(Mark Bethea)는 당시 폭발물 조사관 요원들에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안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결국 그는 “여성용 교회 건물에서 내보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교회 보안요원들이 연이 교회 부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그녀의 차량 번호를 기록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연은 2021년 10월에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녀로부터 불법 소유한 권총 뿐만 아니라 가스 용기, 라이터 및 장작 발화제 등을 발견했다. 그녀는 체포 당시 만류된 비인민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

지난해 6월, 몽고메리 연방 배심원단은 연에게 방화죄와 불법 이민자의 권총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지의 보도에 따르면, 베테아 목사는 성명에서 “이 도시에 큰 빛과 희망을 전달해 온 곳을 한 개인이 왜 파괴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할만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며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가 집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S. 페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퍼스트 배티스트 처치. ©위키미디어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교회 건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FRC는 2023년에 교회에 대한 436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2년의 두 배 이상이며, 2018년에 확인된 공격 건수의 8배가 넘는다.

유진 김 기자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중장년 남성을 위한 무료 체험 기회 전립선을 건강하게! 눈을 선명하게!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연구진의 중장년 남성을 위한 건강케어 프로젝트!



- ▶ 전립선을 건강하게! 소변을 시원하게!
 -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로르산) 식약처 기준 1일 최대 섭취량 115mg 함유
 - ▶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진노감, 빈뇨, 야뇨 고민이신 분들
- ▶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선명하게!
 - ▶ 미린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식약처 기준 1일 최대 섭취량 20mg 함유
 -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인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중장년 남성을 위한 8중 기능성 설계

- 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② 지구력 증진을 위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③ 눈 건강을 위한 미린골드꽃 추출물
- ④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한 비타민B2
- 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
- ⑥ 황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E
- ⑦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2
- ⑧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무료로 먼저 드셔 보시고 결정하세요!
30일간 무료 체험 100% 환불 보장

총액 30만원 무료 체험 30일만 3000원! 지금 신청하세요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 역량을 더 가치있는 제품을 만들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1666-3753

주소: 원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진보 교계 지도자들, 바이든에 서한... 이스라엘 지원 중단 촉구

최근 약 14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가자지구의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한을 작성한 '중동 평화를 위한 교회'(Churches for Middle East Peace, CMEP)는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들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 교회 공동체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한 인사들은 로마 가톨릭, 루터교, 메노나이트, 웨이커 및 복음주의 개신교 배경 등을 가지고 있다.

서명자로는 과테말라의 로마 가톨릭 추기경 알바로 라마제니,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 주교 엘리자베스 A. 이튼, 미국 성공회(Episcopal Church) 주교 마이클 B. 커리,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UCC) 회장 캐런 조지아 톰슨, 진보적 복음주의 활동가 세인 클레이본, 소저너스(Sojourners) 회장 아담 테일러, 진보적 복음주의 활동가 짐 윌리스 등이 참여했다.

서한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가 '대량학살'이라고 지적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하마스의 가습 테러 이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의 배후에 '대량학살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전 당일인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근교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급습하여, 이스라엘 민간인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40명을 납치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계보건기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실은 낙하산들이 상공에서 내려오고 있다. ©Channel 4 News 캡처

(WHO)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가자지구의 2세 미만 아동 중 15% 이상이 영양실조와 돌이킬 수 없는 허약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은 제네바 외교 사절단을 통해 유엔 전 문가의 대량학살 비난에 반발하며, 이 단어의 사용이 "대량학살 혐의의 심각한 왜곡"이며 "현실에 대한 지독한 왜곡"이라고 대응했다.

CMEP 서한의 서명자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과 무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 작전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MEP는 바이든에게 직접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미국이 계속되는 폭력이 가담하지 않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잠재적인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도덕적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마스'가 10월 7일에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을 대량학살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정주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을 애도하며 위로를 기도한다. 예수님 그 자신도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계셨으며 삼십한 자들을 위로하셨다"며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서한을 발송하기 하루 전인 25일,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다. 이 결정은 마지막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뤄졌으며, 결의안은 14개국 이 찬성 표를 던진 뒤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기권함으로써 전쟁 초기부터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서 명백히 벗어났다"라며 "전쟁 노력에 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결국 지난 25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에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표단 방문을 취소했다.

유진 김 기자

그렉 로리 “예수의 부활이 확신시켜 주는 4가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담임인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사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에게 확신시켜 주는 4가지를 제시했다.

로리 목사는 ‘종말에 대한 불안, 부활절, 그리고 죽음의 소멸’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의 전문.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당신의 삶이 아주 잘 되다가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연구원들은 실망감이 가장 어려운 감정적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더 컷트의 한 기사는 “갑정은 뇌의 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은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거의 감정적인 흥분이 밀려 온다. 또는 생일과 같은 기대되는 일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올려보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 먼저, 두 배의 도파민 소크를 받은 후에는 두 배의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제 화학적 반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가득 차 있다. 이는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위협에 더해 러시아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랑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

을 가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심지어 “종말에 대한 불안(Doomsday Anxiety)”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또는 삶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포함한다.

이제 고개를 들어야 할 때다! 봄은 부활하고 소생하는 시기이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였다. 부활절은 죽음의 종말이었다. 혹자는 “전에는 죽음이 사형 집행인이었지만, 부활은 그를 정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역사상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

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다.

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 행위는 나와 당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빼앗겼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실망을 상상해 보라.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함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보라, 여기서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다!”(막 16:6 NLT).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다.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이자 나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무덤을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고 그것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망도 그분과 함께 왔다. 이 소망은 모든 사람, 특히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 있다.

예수님은 물리적 세계에서 몸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고전 15:20-21 NLT).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준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

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한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분과 같은 새 몸을 받게 된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나는 부활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4).

유진 김 기자

예수님의 시대를 초월한 7가지 리더십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웨스 린지(Wes Lindsey-사진)가 쓴 ‘예수님처럼 지도하라: 오늘날 성공을 위한 7가지 시대를 초월한 원칙을 최근 게재했다.’

웨스 린지는 플로리다의 비영리 기독교 단체 ‘메디셰어/크리스찬케어 미니스트리(Medi-Share Christian Care Ministry)’의 마케팅 수석 이사로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성경적 증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ESV).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범을 보이셨다. 제자들의 발을 가까이 씻겨 주신 그분의 모습은 겸손과 섬기시려는 열망을 보여 주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오늘날의 적용: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의 의지를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팀이 당신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을 본을 보이라. 그들은 당신이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을 관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

우게 된다.

당신의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이번 주에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2. 예수님은 시간을 투자하셨다

성경적 증거: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를 통과했다. 예수는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다...”(마가복음 9:30-31 NLT).

예수님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셨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제자로 삼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자를 삼는 능력을 주시고자 목표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결하는데 시간을 애나지를 쏟으셨다.

오늘날의 적용: 직장에서 팀을 이끌든, 집에서 가족을 이끌든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르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가용성은 명령을 전달하는 시간을 넘어서야 한다. 가장 강력한 리더는 관계형 방식으로 연결되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비전을 쌓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제시한다.

당신의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시간을 내고 있는가?

3. 예수님은 협력을 위임하고 권한을 주셨다

성경적 증거: “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돌씩 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라”(막 6:7).

예수님은 위임과 권한 부여, 협력이 더 큰 영향력과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소통하고 의무를 위임하면서 그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다. 또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그들을 돌씩 보내는 방법을 택하셨다.

오늘날의 적용: 당신은 훌륭한 리더일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위임의 부족은 리더십 능력의 미숙함을 보여준다. 권위와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위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모든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의 의사 결정 능력을 성장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씩 보내시면서 협력의 장을 마련해 주셨다. 팀을 위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당신의 팀은 그 과정을 통해 노력, 성과, 창의성 및 자식이 성장할 것이다.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당신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당할 일이 많아 압도되는 것을 느끼는가? 시간을 내기 위해 당신은 이번 주에 무엇을 위

임할 수 있는가?

4.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과 열정을 드러내셨다

성경적 증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예수님은 분명히 죄악된 본성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명을 다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사역 동안 보여준 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며,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알리신 것이었다.

오늘날의 적용: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게 하라. 당신의 비전에 대한 열정과 열정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의 기여를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노력은 더 높은 수준의 열정을 가져다 준다. 당신 또는 팀이 맡은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렘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면 다시 시작할 때이다.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당신과 당신의 팀이 가졌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비전을 재구성하고,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라.

5. 예수님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비유)를 사용하셨다

성경적 증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마가복음 4:2 ESV).

예수님은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유를 통해 복잡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

해 이야기를 능숙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건,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건,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알고 계셨다.

오늘날의 적용: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야기는 통계나 지점이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관련 일화를 공유하면, 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나는 청중과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6. 예수님은 비전 있는 사고방식을 키우셨다

성경적 증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태복음 17:20 ESV).

이 구절은 믿음과 비전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를 두드러지게 하여, 제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상상하도록 격려한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셨다.

오늘날의 적용: 우리는 팀 내에서 비전 있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 이는 그들

의 사역에 미치는 더 큰 능력을 이해하도록 격려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뒤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될 때,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고 참여한다. 상호간의 능력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문제에 접근하고 혁신하며 경계를 넓히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긴급함에만 집중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큰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하는가?

7. 예수님은 공감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성경적 증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한복음 15:9 ESV).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다.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은 매우 강해서 그분을 십자가로 이끌었다. 그분의 연민의 궁극적인 본이었다.

오늘날의 적용: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사랑과 연민으로 인도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라. 그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끼고 있음을 보여주라. 진정한 공감은 충성심을 키우고, 동료애를 격려하며, 성장을 촉진한다.

일상적인 교류를 되돌아보라. 최근에 내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기적으로 공감의 모범을 보이는가? 유진 김 기자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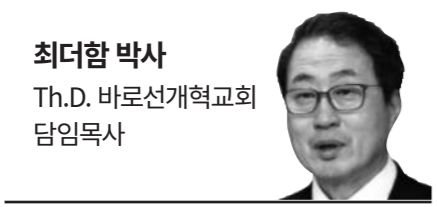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구원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5)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신학교
담임목사

셋째, 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원하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자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이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정의의 칼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자나카던 경찰관이 아이를 목격하고 체포하여 가게 주인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도 목사님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값을 치루었다 쳐도 이 경우엔 아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경찰서에 남기거나 남기지 않느냐의 결정권은 여전히 가게 주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물질적 부채는 해결이 되었지만 아이의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죄악에 대한 용서는 오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아이스크림 값을 치루었지만 아이의 범죄에 대해 용서하고 안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달려 있듯이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 주셨지만 그 죄값을 수용하고 안하고의 결정권은 오로지 피해 당사자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치루신 죄값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룬 우리더러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을 들어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6)
4. 결어
오늘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뽐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조금도 자신에게 의로운 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랑할 일이 있거든 그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웃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가가 이렇게 전하세요. “이 복음에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할 일은 진짜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기분 상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

신은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늘 함께 하며 그 이웃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제발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수준 낮고 천박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로운 관계로 복원시켜 주시고 나머지 모든 도덕적인 죄악까지도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살아가는 진짜 믿는 자, 진짜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목회자의 설교 준비



최병환 목사
센디에고 베다니 교회

최병환 목사와 함께 하는 설교 클리닉(2)

(1) 목회자의 설교 준비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설교 준비에 대한 방법론이다. 어떤 목회자도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주일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곤욕스럽다.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목회자들은 애간장이 녹아 든다.
도대체 언제까지 설교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하지 못한 설교 준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탁월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 지난 번에는 목회자의 설교 철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적인 설교 철학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목회자의 설교 준비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본문 선택하기 2)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3) 본문 주해하기 4) 메인 아이디어 찾기 5)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다룰 것이다.
1) 본문 선택하기
설교자의 첫 번째 임무는 설교할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다. 주제별로 설교할 경우에는 본문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매주 해야 한다. 하지만 책 별로 강해 설교를 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본문을 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학적 단위에 따라 선택하되 반드시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맥을 이해하고 강해할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제리 바인스와 짐 새디스(Jerry Vines and Jim Shaddix)는 [설교의 능력]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다룬다면, 선택된 본문에서 위대한 신학 개념이나 풍부하고 은혜로운 영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일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다. 강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전체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소개해 주며 성도들에게 흥미를 불러 넣어 준다면 연속 강해 설교에 대해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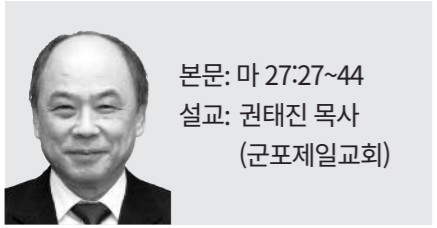
들은 기대하고 듣게 될 것이다.
때때로 구약의 이야기체(내러티브) 본문을 설교할 경우에는 성경의 한 권 전체를 선택하거나 몇 장을 본문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룻기나 요나서 또는 빌레몬서를 설교할 때, 성경 한 권을 본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성경 읽기는 전체를 읽지 않고 중요한 구절만을 선택하여 낭독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
2)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한 후에는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세계적 인 기독교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성경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고 권면한다. 그는 성경의 본문을 마치 “뽕꽃을 피우는 벌처럼, 또는 꿀을 찾기 위해 꽃을 살살이 뒤지는 벌처럼 본문을 조사하라”고 강조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의 감동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가장 큰 이익은 본문과 자기 자신과 정중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주석서를 참고하지 말고 오직 본문과 씨름하면서 반복적으로 읽기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본문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핵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본문 주해하기
설교자가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여 반

복적으로 읽고 묵상한 후에는 본문 주해를 시작해야 한다. 본문을 정확하게 주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역사적 해석은 본문이 역사적인 문사이며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썼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문법적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설교자는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본문에 담긴 저자의 원래 의도, 본문의 문학적 구조, 그리고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신학적 해석은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역사적 사건과 문학적 해석을 뛰어넘어 성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본문 주해를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면 본문 연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 설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연구 소프트웨어 로고스 바이블(Logos Bible)이나 성경 사전 및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자료들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4) 메인 아이디어(Main Idea) 찾기
본문을 주해하면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메인 아이디어(Main Idea)를 찾는 것이다.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는 일이며, 그 중심 사상을 이른바 ‘빅 아이디어(A Big Idea)’라고 부른다. 성경 저자의 의도는 하나이고 설교자의 목적도 저자가 말하려는 하나의 의도 즉, 중심

사상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석한 후에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해야 한다.
때로는 본문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해석을 통해 유추하거나 넓은 의미에서 문맥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메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설교가 준비되고 선포된다면, 청중들은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5)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기
설교자가 메인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구속 사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

신지 발견해야 한다.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5-27).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다.
브라이언 채펠(Bryan Chapell)은 그의 책,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설교자들이 본문에 항상 충실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의 진리를 설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한 방법론으로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FCF: The Fallen Condition Focus)를 제시했다.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경이 타락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자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는 다양한 본문 속에서 직접적, 간접적, 예표적, 상황적, 예언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을 접근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설교 준비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적인 설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구원의 십자가를 지라



본문: 마 27:27-44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세 문장은 그리스도인에게 호소처럼 소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최고의 영성과 지성이며 향기요, 도덕이요, 복된 삶의 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육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 빵을 치는 자에게 저 빵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눅6:29)

겹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여유를 가지라 했습니다. 행복은 영생을 믿을 때 흔들림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주년을 지내며 스테판처럼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을 체험하고 감옥같은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환경 초월의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밤을 좌초에 든듯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났더라”(행16:24-26)

1.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으로, 사고로, 전쟁터에서, 나이가 들

어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체가 흠으로 돌아가도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흠으로 돌아가리라”(욘34:15)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무시무시한 형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유명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풍랑을 잡잡케 하신 갈릴리 호수도 모두가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뿐 아니라 어떤 것도 예수님께 속하면 존귀와 명성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간 새끼 나귀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갠 여인도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26:13)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속하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마27:32)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서 오는 것을 불러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눅23:26)

예수님이 심문과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비록 그는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구레네 시몬과 그의 후손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상이 있습니다.



억지로 기도, 금식, 전도하더라도 구원 사역에 동원되는 모든 것은 복이 있습니다. 구걸을 해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

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같은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행3:5-10)

있거나 성민원에 직원이나 봉사자로 속해 영과 육의 복지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구원과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3.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마27:38)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39-43)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믿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연한 형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28:13)

희망이 있는 자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강도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

물을 받으리라”(행2:38)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13:3)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진노가 임합니다. 제일 무섭고 소망이 없는 자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 가면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 육체는 파멸하지만 영혼은 복을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네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한 후에 회개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자신이 아닌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으나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부활로 가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때 버림받은 것 같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저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27:46)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시, 집에 머무는 장애인에도 ‘자립생활주택’ 문 연다

입주 자격, 시설 퇴소 장애인서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 입주자 선정 방식,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중심 개편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조건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뒤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주택이

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으로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입주 자격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

로만 제한되어 자립생활주택에 공실이 발생해가 됐다.

이에 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개편에 나서게 됐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

식도 기존 운영 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편 내용은 이달 중 진행되는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구로) 모

집 때부터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이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정으로 밟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게발전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가 시작이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 같이 내가 밤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특별 기도

1.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
2. 임자가 없어서 주일예배가 부담스러운 분
3. 교회 다니다가 쉬고있는 분
4. 교회나 기도를원 개척하고자 하는 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영적찬양신유은사대성회

• 총회신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석사과정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중앙위원
• 강서성결교회 음악목사 역임

특별 기도

- 손발이 찬 분
-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
- 성령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최바울 목사
백석총회 동남노회
핸드폰 : 010-3742-9191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3대머슴출신 조삭개오 목사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왜 9번의 앵클방송을 방영했을까?

생생히 살아있는 굼벵이간증을 통해 성도들의 성경적 경제 부흥과 헌금 관이 확실히 바뀌어질 겁니다

조삭개오 목사 검색해보시고 은혜되시면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는 머슴 조삭개오 불러주세요

주간에서 승리하세요
건강잘챙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목사올림
010-9603-0691

CTS 내가매일기쁘게 출연
C채널 회복플러스 출연
1000회 이상 간증 집회 인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장애찬의 누구나 정치

목차

1. 어쩌다 정치를
2. 탄핵의 폭풍 속에서
3.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짜장면을 먹다
4. 최연소 시사평론가
5. 2020년 10월 3일
6.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7. 공중전 전문가의 지상전 도전기
8. 대통령직인수위의 돈키호테
9. 청년세대가 뭐 하는 곳이야?
10. 이준석과 한판승부
11. 일제 삼푸를 들고 나타난 최고위원
12. 누구나 정치합시다!

저자 장애찬
인물정보 정치가/경망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서출판 나눔사(전화 02-359-3429)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SELOLIFE, Nornature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중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버터 줘서 고마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신을 쫓아 내며, 병을 치유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 납니다. 공개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은사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열린 마음

이겠지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과 은사에 맞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인내와 순종의 삶에 하나님은 세

밀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려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다 보면 상황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 없지만, 분명히 표면적인 앞에서 더욱 깊은 앞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사와 인생사를 읽고 있으면, 직접 만나 앞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한미연 목사의 간증은 일반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책 『버터 줘서 고마워』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을 힘들어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해합니다. 저자의 간증을 들으며, 인내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있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수년이 흐른 뒤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저자가 흘렸던 눈물과 땀이 자양분이 되어 그 열매를 묵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고, 인내 가운데 순종하는 삶에 한걸음 내딛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공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연 목사의 삶과 같이 모중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은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후 1:10)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아름답다, 확실하다, 신빙성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그렇게 믿음직하고,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김만홍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자연을 바라보고 문화, 문명의 자취를 더듬고 음악을 들으면서 예술 세계에 빠진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다니다가 양이 안 차면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런 이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마 11:7) 그렇다. 사람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고 좋은 옷을 입은 이를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워한다. 그러나 그들과 먹고 마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허전하다면 참된 만남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가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곳을 따라다니며 즐기고 사니 문제가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만 알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자녀의 할 일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자녀(롬 9:8)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강영희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게 하소서 365'



우리는 예수아(예수)를 따르는 세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솔직한 고백으로 이 책의 서두를 연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유대주의의 대처해야 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거부당하기도 한다. 유대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메시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방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심각한 정체성 갈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정체성 문제와 씨름했다. 메시아 신앙은 유대인 것이었으므로 초기 메시아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의 교회 공의회(행 15)에서는 이방인이 본질적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셋 포스텔, 에이턴 바, 에레츠 소레프 '모세 읽기 예수 보기'

사탄의 속성, 타락에 관하여

시간 '대적'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맞서며 모든 악과 죄의 배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저자故 에드워드 바운즈 목사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영적으로도 쪼개진 조국의 기독교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성도와 교회, 교회와 교회 간의 분열, 다툼, 분쟁, 증오를 생생히 목격하며 그 많은 틈을 막고 다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교훈을 이 책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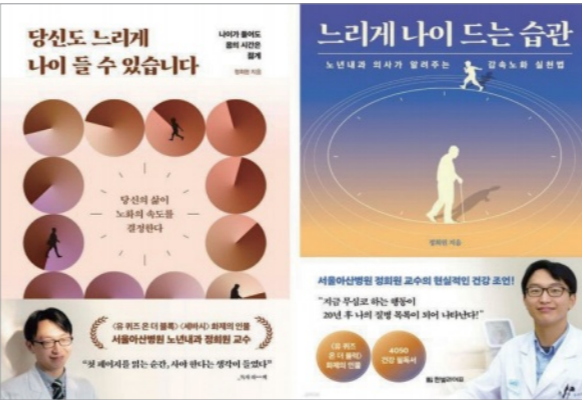
저자는 대적의 실체와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함께 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가지 얘기가 덧붙고 많은 문학, 감상, 전통이 마귀를 둘러싼 많은 미신을 만들어 냈다.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이 그를 그려내기도 하고 그의 특징을 과장하며 그가 행하는 일을 탐바꿈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마귀에 관한 직나라고 단순한 사실이 있다. 마귀에 관해 배워야 할 사실이 많다. 오늘날처럼 마귀에 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대는 없다. 적에 관해 알아야 한다. 적의 특징, 존재,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마귀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이다. 하지만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만큼 계획과 지혜에 있어서도 엄청난 능력

을 지녔다. 그가 잘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는 전략은 교회의 통제권을 뺏는 것이다. 교회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닌 거룩한 목적을 약화하고 왜곡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우리 근처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권력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이 권력과 갈등은 우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다니엘은 천사가 나타나 답을 주기까지 장장 3주를 기도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은 이스라엘의 경건, 평화, 번영을 위협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명령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어떤 썩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엄청난 악의 근원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욕의 잔재를 남겨두는 건 노출된 위치에서 있는 격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고령화 시대 노화 관련 도서 종수·판매량 증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도서의 출간과 판매가 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지난해 '노화·나이들·웰에이징' 등 관련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64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판매량도 53.8% 반등했다. 구매자 연령별로는 50대(32.4%)와 40대(29.9%) 비중이 높았다. 30대(13.5%)도 20대(3.2%)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베스트셀러 12위는 정희원 교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와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이 차지했다. '노후노년의 삶' 관련 도서 출간 종수도 지난해 50종으로 전년보다 39% 늘었고, 판매량 역시 5.6% 증가했다. 경제 경영서 5권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들었다. '노년·죽음' 관련 인문서 종수는 61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판매는 32.9% 늘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파스칼 브뤼크네르, 아톨 가완디 등 사상가들의 저



2023 노화 관련서 베스트셀러 ©예스24
서가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정체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원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왜 인생이 헛된가(1)

매일복사

(전도서1:1-1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시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7:29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약을 세워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아야하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복잡하게 되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쓴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왜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도님!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어도 왜 인생이 헛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입니다. 세상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명품 때문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명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에게 보이게 합니다. 헛됨을 성경은 유행의 장식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명품 하나만 하던 마음이 명품을 아무리 많

이 구입하여도 만족이 없기에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명품은 무익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큰돈을 지불하고 구입해 보면 보잘 것 없는 것, 하찮은 것이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허영심만 키우는 유행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헛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던 거룩한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둘째로, 개인의 개인적인 감정,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간섭의 도움 없이는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삶은 언제나 헛된 결과만을 낳을 뿐입니다. 시 39:5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어박에 안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한 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짧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단 생각을 해도 헛된 인생,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도 그 삶이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도 그 삶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애를 우려놓으면 입김보다도 가볍습니다. 전 5:10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

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성도님! 세상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한 삶은 헛되고, 허무한 생활의 연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정에 모시지 않는 생활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실수 없이 한다고 하여도 나이가 들어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많은 일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물질들을 얻을 때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의 머리만 믿고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 2:22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 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던 말인가?" 진정한 보람을 찾고 싶습니까? 참다운 인생의 유익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잠 23:4-5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 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물쳐 말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얻으려고 평생을 수고하다

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뒤를 돌아보니 생명의 끝 자락에 와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헛된 인생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여도 영원토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십시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영식을 주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이 보람은 있습니까? 영원히 남을 만한 것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만한 것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지만 이 세상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니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 90:9-10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스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기쁘고, 슬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도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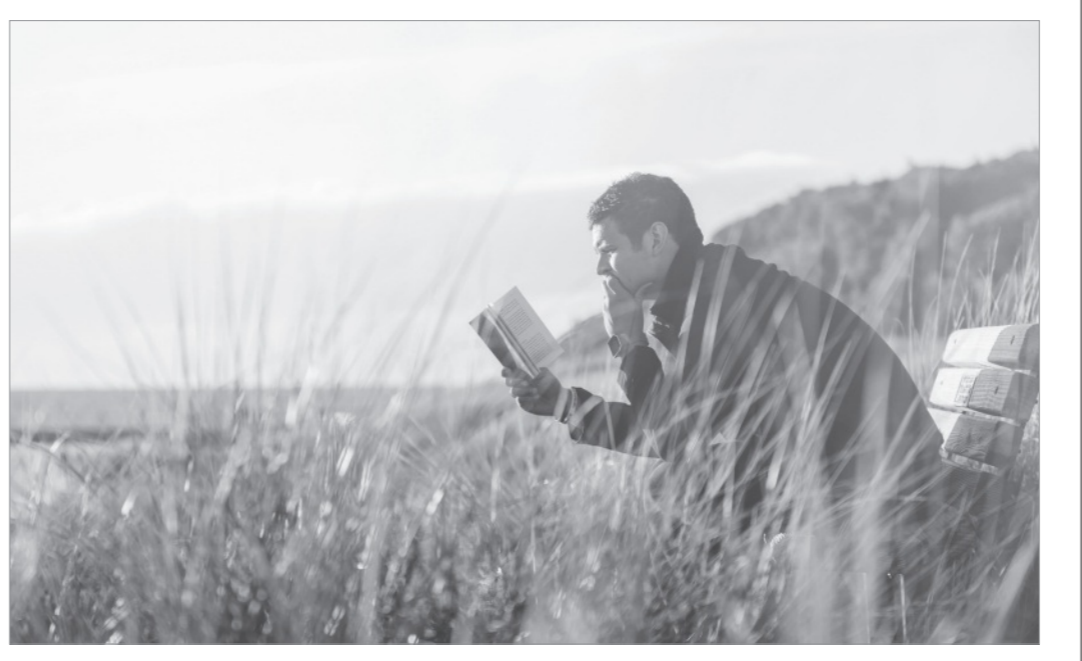
월을 아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은 맞추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한다면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따라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다. 창8:22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이 평안하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항상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행 27장에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출항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태풍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다가 자신들이 생명처럼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섬에 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고 섬에 갇힌 후에야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아 버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저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넘치지 않을까 염려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정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온빛교회 제공

바이블칼럼

복된 생각

인간 생활에 있어서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 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현재의 그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저주받는 운명이 된 것은 그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

을 넣었다니.."
 3년이나 따라 다니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문 동이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중 풍병자도 고쳐주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탄던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배신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30년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 돈 써보 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나무에서 굴러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나와 죽게 되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의 성품이 되고, 그의



성품은 그의 운명을 낳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면만 것보다 더욱" 라고 했습니다. Cherry 플레닛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roverbs 1:7 NIV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 fear : 경외(敬畏), 공경과 두려움
 - beginning : 근원(根源)
 - fools : 어리석은 자들
 - despise : 경멸하다
 - instruction : 가르침
 (잠언 1장 7절)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지식의 근원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가르침을 경멸한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륵화에서 열매지는 마름(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중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름의 마(麻)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리우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 식물로 자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이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색이 없어 발간하지 않으므로 건조 안출조 들은 그 장수를 는 여가 봐 두었다가 매달 써를 뿌리 놓았다가 자연 매임을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효능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뜻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푸른 빛이 강할수록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을 줄무늬를 나타낸다.
 푸른 천마와 청천마, 줄기는 적선(赤線)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천마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중풍,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신경성기, 위궤양, 간질, 간경화, 당뇨, 식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열이 서로 응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열이 아래로 속이 맑아지면 구름이 나고 구름이 소리가 나며 천마가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장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실 확충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훌륭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에서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강지윤 칼럼 진정한 영성



강지윤 박사

어느 글에서 '자기 존중감이란 자신의 긍정적인 속성을 거짓 겸손이나 우월감 없이 인정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속성을 열등감이나 자기비하감 없이 시인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존중감의 본질을 형성하는 토대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혼란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 사이에 끼여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우월대기도 하고 경직된 자기인식으로 고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질이 낮은 사람으로 단정하거나 신앙심이 없는 것으로 낙인찍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 대해 비하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난은 지극히 성스러운 것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빈한한 자신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한없이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다. 설교 중에 믿음 가운데 성공적인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듣거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들 때, 그것을 낮게 폄하하거나 설교가 너무 기복적이다, 성공주의적이다, 라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거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며 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염려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늘 부정적인 정서를 퍼트리고, 목회자의 속을 태우며, 교회의 방향에 안티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연합한 자들을 실족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하나같이 자기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열등감과 자기비하감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너를 살려냈다' 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스스로 막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횟수가 여러 해가 되어도 그것이 치유되기는 커녕 그 상처 위에 아집을 얹어 더 견고한 부정적 자아상이 되다보니, 결국 그것이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독하게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입니다. 저는 내담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곤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귀중성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여러 해가 되어도 그것이 치유되기는 커녕 그 상처 위에 아집을 얹어 더 견고한 부정적 자아상이 되다보니, 결국 그것이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독하게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

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비참하게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우주보다 넓은 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며, 차원 높은 진정한 영성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부정적으로 타인을 폄하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열어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내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58)



권혁승 박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 119:105)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절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두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가운데 105절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준다.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사막’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와 어원이 같다. ‘말씀’과 ‘사막’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공통점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일까?”

사막을 정의하는 기준은 연간 내리는 비의 양이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간 300mm 이하의 강수량이 있는 곳이다. 그런 사막은 농작물 재배가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기에 내리는 비로 초지가 형성될 뿐이다. 이런 사막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치며 살아가는 곳이다. 그

래서 사막은 목축문화의 현상이다.

히브리어로 ‘말씀인 ‘다바르’는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막이라는 환경이다. 사막은 자연의 불가항력적 힘 앞에서 인간이 한계점을 느끼는 곳이다. 인간의 미나 멈(극소)을 경험하는 곳이 곧 사막이다. 사막 앞에서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사막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대(백사막)가 되시는 곳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삶 전체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이상적 모습은 사막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시내산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곳이기도 하다. 사막에서는 양들이 목자의 지시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하는 곳이다.

우리는 21세기 과학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사막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과학의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성 역시 그만큼 많아졌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과 자연환경의 파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현대의 무서운 질병들, 모두가 우리들 앞에 몰아 닥친 현대문명의 사막들이다. 이런 사막에서 바르게 사는 길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발의 등’ ‘길의 빛’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뜻은 ‘발을 위한 등’ ‘길을 위한 빛’이다. 곧 등과 빛은 우리들의 발을 움직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등과 빛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발을 움직

이게 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할 길을 걷게 하는 데에 있다.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타브’는 ‘부풀어 오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다듬어 만든 일종의 전용도로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은 다나기에 불편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도록 준비된 안전한 길이다. 더구나 그런 길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된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요모한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말씀 연구는 우리들에게 더 없이 큰 즐거움을 안겨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연구 대상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 말씀이 밝혀주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발을 옮겨 실천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오히려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발을 옮겨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다.

믿음의 최종 지향점은 행함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다(약 2:17). 예수님께 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대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말씀은 발의 등이요, 머리카락의 등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원리의 발견

요 14:12-14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지, 주문을 외우는지, 도를 닦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빌거나 갖가지 필요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무반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고하는 기도와 모르고 하는 기도 차이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도의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도도 계속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이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이나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나 복을 목적으로 비는 행위가 1차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제임스 팩커는 말하기를 “기도는 두 가지 색깔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비전인 하나님에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할 것인가로 말미암는 찬양과 필요의 인식으로 발생하는 간구가 번갈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원리라고 해서 특별한 기도의 방법들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발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을 살펴보면 기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많고 기도

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기도의 순서에 대한 주의입니다. 먼저란 처음의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기도자가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먼저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무엇이 되는 것이 먼저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성도답고 직분자답게 인격과 믿음을 갖추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는, 일을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중요시 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기록한 13서신에서 언제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롬 11)입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며 성도들이 항상 따라가야 할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먼저”를 구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를 놓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일의 가치보다 우선인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존재의 가치) 이후의 사역(일의 가치)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기도자가 된다는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진실한 기도자가 아닌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불만투성이인 기도자가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 하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기쁨과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색한 기도일 뿐입니다. **내 이름의 기도** 주제 말씀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를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이 간단하지만 기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신 맥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자녀)이 아니면 아버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내가 잘라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조건 달라고 애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창골산봉목사

성경상식

사제

신과 인간의 중개인
성서의 맨 앞부분에는 사제가 나오지 않는다. 초기에는 카인과 아벨, 노아처럼 누구나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일반 사람을 대신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줄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싹텄다. 성서에 언급된 최초의 사제는 멜기세덱이다. 이스라엘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사제가 없었다가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의 외치는 출애굽기 28-29장과 레위기 8장에 설명되어 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죄를 신에게 대신 고해하고, 인간과 신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에 피를 뿌릴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모두 아론의 후계자로 간주되었으나 그중에는 아론의 두 아들처럼 탐욕스럽고 타락한 자들도 많았다. 모세의



시대부터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제들은 성막이라는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뒤부터 사제들은 그곳에서 제례를 행했다. 사제들 중에는 고결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복음서들이 증언하듯이 예수의 시대에는 대부분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관리였다. 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처형시켰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제는 동정심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40년 뒤 로마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사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신약성서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도의 사제는 천상의 예수 단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마지막 제물이며(신의 어린 양) 신과 인간을 맺어주는 사제였다. 낡은 사제 제도와 제사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교 목사들을 사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 대신 ‘주교’, ‘장로’, ‘부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스도교에서 ‘모든 신도들의 사제’는 신약성서의 몇 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9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은 신도들을 몇 차례 ‘신의 사제’라고 지칭한다.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옥합

빌려 받은 것들이니

지혜와 믿음과 사랑
땅과 햇살과 바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것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며 탐욕을 가질 것이 아니며
오직 감사히 여기며 겸손히 받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는 이는 영원한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롬 12:1-2)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잘 사는 것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는데, 여기 '그 지으신 모든 것'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룰 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형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 등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음이 있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몸도 함께 더러워지고 악해 지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도 해치는 일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일 3:15)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룰 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때,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이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부 크리소스토스는 이 구절을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제사가 되는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제물이 되게 하라. 혀로 더러운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물이 되게 하라. 네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번제물이 되게 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행도 해야 한다.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귀로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들어야 한다. 이는 제사는 부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는 다른 행위의 첫 열매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 발, 입 그리고 다른 지체로 하



나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신이시므로 속되거나 허물이 있는 제물은 열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됩니다. 현대와 같이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한 때에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려면 불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거룩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바쳤던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가져올 때에는 활기차게 살아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몸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단번에 드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죄악에 물든 죽은 행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산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보고 듣고 맛따뜨리는 것들이 하나같이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요즘은 대기가 오염되어서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옷깃이나 소매가 더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다보니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석탄 하치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창문을 꼭 닫아두어도 미세한 석탄가루가 틈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시커먼 가루가 묻어 있고, 세탁해서 널어놓은 옷가지도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 다니엘의 사례는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립학교의 생도로 선발되었습니다. 생도들은 삼년 동안 왕립학교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나

중에 시험을 거쳐서 왕의 신하로 일하게 되므로 왕은 특별히 그들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써 우상의 제물과 다를 바 없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사실을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주어 시험해 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안색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윤곽한 것을 보고서 그들의 청원대로 삼년 동안 채소와 물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의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세속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회의 법과 제도와 관습이 다 세속화되어서 더 이상 성(聖)과 속(俗)의 구별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말이나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속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언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깊이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락과 유흥으로 재미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가장 유망한 사업은 오락산업 곧 엔터테인먼트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니엘이 보여준 것과 같은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단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고충이 있습

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그 같은 생각이나 노력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갈등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편을 택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봉착한 성도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속의 유혹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본문에 이르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 라는 만무합니다. 이 세상은 내일은 오늘보다 한층 더 타락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것이 그만 싫어집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보니 무가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가까이 하기 싫고 보기도 싫다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성경은 금하지만 나 자신은 마음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면 내면적인 갈등이 생길 리 없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르기를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라서 4장 6절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2장에서 이어집니다.)

트레이시 제일교회 주일설교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군선교연합회-라잇나우미디어, 군 장병 영적 성장 위해 MOU 체결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라잇나우미디어(Rightnow MEDIA)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군선교연합회)가 최근 군선교와 청년선교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 사역 등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군선교연합회는 우선 50개 협력 군교회에 모집하고 라잇나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잇나우미디어는 구독 요금제(1만 원)를 제공하고 3년 내 800개 군 교회 및 협력 교회들을 섬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선교연합회는 군교회가 라잇나우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라잇나우미디어는 군선교연합회의 활동을 돕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군 장병들의 영적 성장 도움을 준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영상에 무



(왼쪽부터) 이정우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과 리키 김 라잇나우 미디어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분별하게 노출되고 증폭돼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디어를 통한 영적 자원이 군사역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잇나우미디어 대표 리키 김은 "미

어를 통한 선교는 지속적이고 친근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군 장병들에게 말씀의 힘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탁구로 남북 평화 이뤄내고파”



최근 만난 양영자 선교사는 “선교활동 할 때 탁구 선수 경력이 십분 활용되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냈지만, 극복해야 할 고비도 있었다. 어머니 사망 후 우

울증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신앙으로 이겨냈다고 회고했다.

1997년부터 14년간 몽골과 중국에서 제2의 인생으로 탁구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양영자 선교사는 “탁구만큼 변화무쌍한 종목이 있을까 싶다”며 탁구의 매력을 설명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탁구를

즐기는 이들을 보며 선교 의지가 더 굳건해졌다고 한다.

그의 최종 목표는 북한 선교다. 1991년 남북단일팀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사례를 ‘기적’이라 회상하며 “탁구가 남북 접촉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영자 선교사는 “스포츠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장벽을 넘게 한다”며 탁구를 통한 남북 평화 실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나래 기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 생일 맞아 기부



다고 최근 밝혔다.

범규는 3월 13일인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 3,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사랑의열매는 “성금은 가정과 교우관계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회복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19년 데뷔해 트렌디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Z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 설교/하늘빛광성교회 박경수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주만찬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생방송 명설교 새벽기도회 4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센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오전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제인시 더 월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0 CBS성서학당-열왕기서 16장 - 김기석 목사 "아비아, 아사, 나답의 통치" (본문 - 왕상 15:1-32)	0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말씀노트	50 힐링송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 하소서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북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30 말씀의 센터 든든교회 장항희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CBS 뉴스	00 내 삶의 행복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1:00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00 특집 프로그램 50 살롱 살롱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TV 설교/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30 TV 설교/포이애마 예수교회 신우민 목사	20 말씀의 창 - 온정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 3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박신중 목사(열마인온누리교회)	00 울포원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스페셜 로드기행 이경의 걷다보면 30 리버미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TV 설교/수원목양교회 유태민 목사 30 CBS 아카데미 숲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걸음으로
오후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한호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구세군대한본영 30 TV 설교/용인송전교회(권준호 목사)	00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희예배
16:00	30 생명의 말씀-안성복 목사(세린교회)	00 말씀의 센터 충만교회 임다윗 목사 4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예수가 찬찬 팔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우교회)	00 CBS성서학당	30 성지가 좋다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말씀의 센터 평택성원교회 박춘권 목사 40 말씀의 센터 세계로방주교회 방재길 목사	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교회)	0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16강 "더 중한 것 인 사랑"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00	00 생명의 말씀-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노트 4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10 매일 주와 함께	10 바울로부터 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0 파워인터뷰 30 TV 설교/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00 말씀의 창 - 홀리씨즈교회 서대원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교회 장항희 목사
19:00	30 사장은님은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잠맛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TV 설교/땅끝까지 복음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용인비전교회 신우성 목사	00 비전메시지 -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인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다니엘 기도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오정형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5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박중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열왕기서 16장 - 김기석 목사 "아비아, 아사, 나답의 통치" (본문 - 왕상 15:1-32) 50 CBS TV 뉴스/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드 Cseed(씨드)
22:00	30 CTS특선다큐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40 나의 삶 나의 노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10 새롭게 하소서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만의 지분을 품는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말씀의 센터 물뫼들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목사님 궁금해요	00 한소망교회 한병의 기도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00 말씀의 센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30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생물교회)	0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16 강 "더 중한 것 인 사랑"	00 비전메시지 - 기쁨이있는교회 조지훈 목사 30 비전메시지 - 더글로리치치 박선관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의 센터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 목사	2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승리교회 박규성 목사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다시보는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00 특집 프로그램	00 서재의 재발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순복음교회)	00 CBS성서학당-요한계시록 9장 - 송태근 목사 "새벽별을 주리라" (본문 - 요한계시록 2:18-20)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교회 김양재 목사

나라사랑전국기독교단체 연합 성명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7백만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7백만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없는 내전 상태나 다를 바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는 '선거'를 여야가 서로 죽기 살기로 치르고 있기에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감에서 석고 대죄해야 할 파렴치범들조차 당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킴으로 온 국민들은 연일 우왕좌왕 격렬한 '체제 전쟁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당의 승리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두 갈래의 길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평화롭고 복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리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게 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지옥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협박과 암묵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국가 정책이란 방법으로 또는 안하무인 우격다짐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 집단(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부, 교육계, 노동계, 인권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의 동지애다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뼈꾸기 탄란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탄란들이 부화되어 괴력을 과시하면서 평화로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총력으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분기점은 4.10 총선,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백만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총칼 없는 이 비극적인 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두커니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함을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무엇입니까? 투표라는 선거 제도를 통하여 정해진 직무를 법과 제도 안에서 잘 감당할 사람을 선정하여 각 의회로 혹은 각 자치단체로 보내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입니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께서는 각 후보들의 됴됨이와 각 정당들의 속성을 진중하게 잘 파악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느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이 정녕 기울어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체제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헌신하실 분들인지를 맑은 양심으로 분석하십시오. 적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인격, 품격, 도덕, 윤리, 전문지식, 준법정신, 정의로움, 화합과 배려, 이타심, 헌신 봉사정신을 두루 함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5천만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참된 애국자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여 거짓과 후회 없는 신성한 주권의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에서는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연히 일어나 지난 3월 22일 제1차 시국성명서 발표와 국회의원사당 앞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1. 나라의 위기를 진정한 애국의 마음으로 직시하시고 경각심을 가져 주십시오.
2. 구국의 심정으로 이번 4.10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3. 내 발등만 보지 마시고 내 직계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시대상을 내다보시는 혜안(慧眼)을 가져 주십시오.
4. 후보와 정당(비례정당 포함)을 두고서 정의와 불의, 애국자와 매국노,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당과 국가의 유익을 우선하는 정당을 냉철하게 분별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은 결단코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종북주사파, 통진당의 잔재, 소위 386 및 한총련 관련자, 송중(崇中) 친러(親 러시아)에 속한 자들을 절대로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전과자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각종 범죄 혐의자들을 절대로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직과 국회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자들을 결단코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악법들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자들을 또다시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결한 애국자들을 국회로 보낸다!

하나,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천봉쇄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신속히 조치하라.

끝으로, 전국 교회의 3만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의 메신저들입니다. 부디 오늘의 국가적, 교회적 위기를 직시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강단에서 외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후 2024년 4월 2일

나라사랑전국기독교인연합
(사)전국기독교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및전국기독교총연합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
KCSS 대한기독교노인회